



제목	A Social Revolution: Politics and the Welfare State in Iran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발행일	2017. 8. 8.
저자	Kevan Harris
출판국가	미국
페이지수	336
ISBN 또는 ISSN	978-0520280823

내용 요약

이 책은 이슬람 혁명 후 엄격한 국가 이데올로기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연구들이 무시하거나 간과해 왔던 사회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저자는 오늘날 이란인들이 정치 조직 형태보다는 복지, 사회 정책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란의 정치적 소요는 사회 복지 프로그램이 성공한 결과, 변화를 지향하는 새로운 지식인 계층이 형성된 결과라는 것이다. 그 증거로 저자는 혁명 정권이 의료,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국가가 어떻게 일상생활을 통제하는지, 어떻게 도전자들에게 권한을 주는지를 추적하였다.

1장 “산유국이 복지국가가 될 수 있을까?”에서 전체주의, 렌티어리즘(rentierism), 포퓰리즘 등 3가지 이론으로 이슬람 공화국의 정책을 분석하였다. 2장 “팔레비조의 국가 형성 전략으로서의 복지 정책”에서는 1950~1960년대 호황에 근거한 팔레비조의 복지 정책을 조사하였다. 3장 “성직자 복지국가의 탄생”에서는 이슬람 혁명의 영향과 이란이라크 전쟁 결과 복지정책이 국가의 권력 투쟁과 연관되는 현상을 설명하였다. 4장 “지방의 변신과 인구통계학적 기적”에서는 이란 복지국가의 가장 큰 변신 조직인 지방의 ‘1차 보건 의료(Primary Health Care)’에 대해 분석하였다. 5장 “복지국가의 팽창과 새로운 중산층 정책”에서는 1990년대 복지정책의 발전과 확산에 대해 조사하였다. 6장 “이란 복지국가의 혈통”에서는 민족주의 전략과 시민권의 결합으로 인한 배타적 복지정책으로의 회귀에 대해 논하였다. 결론 부분에서 저자는 21세기 사회 정책의 발전 형태와 그 결과 나타날 사회 현상을 논하였다.